

종합·해설

“대통령 잘못 보좌 한나라의원 사퇴해야” “음해성 발언 사과하라”

# 국감 참고인 막말에 의원들 잇대질 고함 난무

## 영산강유역환경청 국감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잇대질과 고성, 막말로 얼룩졌다.

여·야 의원들간 4대강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공방에 이어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도 자신들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의원들과 입씨름을 벌이면서 국정감사 종단과 퇴장 사태로 이어졌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이찬열(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공주대 정민철 교수에게 강 수질 악화의 원인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보름 막아 수질을 악화시킨 뒤 총인 처리시설을 세운다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면이 있다”며 “시장의 약장수가 악을 파는 것처럼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되고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사람들과 숫자노를 하듯 사업을 밀어 부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감장 안에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고, 민주당 의원도 이에 맞섰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김성수 위원장에게 “왜 발언을 막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했고, 강성천 의원은 “특정 정당에 대해 음해성 발언을 한 정 교수가 사과하기 전에는 국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를 듣고 있던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 참고인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언급하며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대응했다.

또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막말하는 것이 교수로서 적절한 행동이냐”

고 질타하자 이에 정 교수는 “특정정당을 언급한 것은 죄송하지만 교수가 국회의원 밑이나 다투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여·야 의원, 의원-참고인 간 잇대질과 고성이 5분여 동안 이어지자 김성수 위원장은 정회(停會)를 선포했다.

2시간여의 정회 끝에 재개된 국감에 앞서 홍영표(민주당) 의원은 “참고인인 정 교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은 야당 의원으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격

한 발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 교수에게 퇴장을 요청했고 정 교수는 “불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교수라는 직업이 입으로 살다 보니 지나친 말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이에 앞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김창원 영산강백길연구소 소장과 설전을 벌였다.

홍 의원은 “뱃길 복원의 목적은 물류를 수송하기 위함인데, 현재 목포항의 처리능력도 남아도는 상황”이라며 “김 소장은 뱃길

을 복원해 무엇을 얼마나 수송한다는 말인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소장은 “광주가 어디 산골 시골 동네인 줄 아느냐. 국회의원이라고 잘 알고 와야 한다. 광주에 공장이 1000만 평이고,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실어나를 물류는 많다”고 주장했다.

공방을 지켜보며 수 차례 중단할 것을 요구하던 김성수 위원장은 “오늘 참고인들은 국회의원보다 더 정치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9일 4대강 사업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나라당 의원 퇴진’ 등의 발언을 한 정민철 공주대 교수가 김성수 위원장의 퇴장명령을 받고 국정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수질 개선 필요한 영산강, 왜 4대강에 넣나”

## 광양 동호둑 붕괴 사태 집중 추궁도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열띤 공방을 벌였다. 광양 동호둑 붕괴사태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첫 질의에 나선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수질이 개선이 필요한 영산강을 억지로 4대강 사업에 끼워넣으려는 게 문제”라며 “퇴적토 준설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빠지고 뱃길 복원 등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표(민주당) 의원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전체 예산 2조6000억원 중 수질개선 사업에 배당된 몫은 1.8%인 483억원에 불과하다”며 “황포돛대 몇 대 띄우기 위해 수천억원을 들이는 전남도지사도 정신이 나갔다”고 질타했다.

반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손범규(한나라당) 의원은 “(홍영표 의원 발언) 483억원이 수질개선 사업 중 총인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에 국한된 것이

며, 관점에 따라 4대강 사업 전체가 수질개선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고, 조해진(한나라당) 의원은 “수량 확보만으로도 수질 개선이 되니 보름 만들어 물의 양을 늘리는 것도 사실상 수질개선 비용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 홍보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교육홍보단’ 강사 중 35%가 환경운동연합 등 한반도대응반대단체 소속 강사이다”라며 “환경청이 홍보 마인드가 없으니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서 4대강 사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될 수 있겠느냐”고 말

했다. 의원들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 공방과 함께 광양 동호둑 붕괴사태에 대한 대책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강성천(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22일 광양제철 인근 지정폐기물처리장 주변 독에 금이 가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책을 마련했느냐”고 질의했다.

안연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한국지반공학회가 육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경제적, 환경성 등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포스코, 폐기를 처리업체인 인선이 엔티, 환경청, 광양시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답했다.

신영수(한나라당) 의원은 “방조제 옆에 지정 폐기물 매립지를 설치한 것은 환경청의 한심한 선택”이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청은 부지 선정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수현기자 yang@

## 국감 브리핑

### 생태산단 국비 지원 호남 소외

정부의 생태산업단지 국비예산 지원이 지역별로 격차가 심해 호남지역의 소외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이 배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5년 동안 집행된 생태산업단지 국비예산 지원 규모는 호남권이 영남의 44.3%에 불과했다.

심해져 영남은 전체 160억5100만원 가운데 54.9%인 81억1500만원을 차지한 반면, 호남은 37억4400만원으로 불과 23.4%에 그쳤다. 김 의원은 “호남과 영남지역을 비교할 때 물산과 여수는 석유화학 중심, 포항과 광양은 철강중심 업종이 집중돼 있어 국비예산이 편중 지원될 만한 이유가 없다”며 “명백한 지역차별인 만큼 이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한은 신입사원 72% 서울 출신

한국산업은행 신입사원들의 특정 지역, 특정 대학 편중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19일 배포한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10명으로 2.3%에 불과했다. 출신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87명(19.8%)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82명(18.6%), 고려대 73명(16.6%) 등이 그 뒤를 잇는 등 이른바 ‘SKY’ 대학 출신이 242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해외 대학 출신은 24명으로 5.5%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내 방만 경영·부채 109조 질타

### 국회 국토해양위 등 국감

국회는 19일 기획재정부와 정무위, 국토해양위 등 11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정무위의 한국산업은행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 남상대 사장의 연인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과 정권 실세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에 대한 추궁을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로비 의혹을 거론하면서 미국에 체류 중인 천 회장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남 사장 연인 로비 의혹 전방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

다. 조영택 의원은 “대선 직후인 2008년 1월 말 대우해양조선이 임천공업의 남포대금 상송분을 이유로 요구한 추가 결제분 43억원을 지급했다”면서 “이 돈이 남 사장 연인로비를 위한 비자금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LH의 막대한 부채와 방만 경영을 집중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109조원에 이르는 LH 부채 문제를 놓고 전·현 정권 사이의 책임 논란도 벌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총리실 정무실장에 김대현씨

국무총리실은 총리실 정무실장(1급)에 김대현(54) 전 17대 대통령인수위 정무분과위원, 공보실장(1급)에 유상식(47)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을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신임 실장은 전남대 법학과 출신으로

민정당 사무처 간사를 거쳐 국회 정책연구위원, 한나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에너지관리공단 감사를 역임했다. 유 신임 실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와 정치부장을 거쳐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일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원별장주택**

전남 보성 전원별장 주택 대지 350 건35 단층슬라브 창고30평 교통중요 조용하고 가격저렴 즉시 입주 가능 1억 주안적

**5000평**

전남 보성 계획 관리 대로점 5000평 완전평지 현황과수원 아파트 빌라 연수원 귀농 등 최적 개발업자 환영 몽땅 3억 주안적

문의 011-837-3140

**금당 공인중개사**

■ 감정가 이하

- 광산구 신촌동 계획도로점 주거지역 2160평 공시지가 4억9600 매도 3억8천
- 주유소 광산구 명 491평 용지 5억 교환가능 10억
- 대지. 원산동티티부근 4차선도로변 492㎡(149평) 공시지가 5억 7천만원 매도4억3천만원
- 금남로5가 대지503㎡ 152평 공시지가 4억3천 매도4억8천
- 주택 동구 지산동 대지 40평 공시지가 5850만원 매도 4300만원
- 신안동 상업지 310㎡(94) 공시가 3억3천 매도 2억4천
- 마복동 자연녹지, 대지 574평 공시지가 5억 매도 5억3천
- 대지, 두암동 소망도로점 275㎡(83평) 1억5백
- 금남로 창입금고 뒤 주택 영암읍 적합 공시가 매도 8400만원
- 북동 6차선 도로 대지 55 건평 206평 6층 건물 5억
- 화정동 6차선 도로 대지 135건평 173 대출 3억 매도 6억
- 원평 건물 광주역 앞 대지 108 건평 383평 감정 11억 8천 대출2억 5천전세 9천 월 650 매도 6억7천

■ 매도·교환

- 송정동 4차선 도로변 2중주거지 866평 공시지가 13억8천 매도16억 2천
- 두암터은 4차선도로 195평 교회, 병원, 학원등 적합 평당 370만원
- 함평군 해보면 (문정입구) 4차선 도로변 관리지역 550평 창고·식당·공장등 다용도 1억9300만원
- 생산녹지 창고 등 다용도 광산구 비아 2722평 13억
- 충효동 유실수 있는 담 575평 대지 10평포함 1억3천
- 북구 충효동 대지 147평 전원주택 적합 7900만원
- 생산녹지 서구 덕흥동 1602평 공시지가 6억3천 매도 9억천만원
- 자연녹지 706평 매월통 시공주거 부근 매도 9억9천만원
- 화순군 능주면 소재지 주택 대지 100평 수리해야함. 1900만원
- 화순군 한천면 일야 13,862평 공장 등 다용도 평당12000원
- 서구 유촌동 생산녹지 1631 평과 창고, 공시지가 14억 3천 창고는 1년 시공세 2200만원에 임대중임 22억 5천만원
- 원평건물 화정동 대지 91평 건평 145평 원평 10개 투룸 3개 쓰리룸 2개 주택있고 전세 1억천 월380 매도 5억3천 주택은 주인이 사용
- 별장부지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자연녹지 562평 유자나무 골나무 많은 땅 매도 1억 2400만원

■ 목욕탕 임대

- 북구 일곡동 APT수선세대있는곳 영업질됨 490평 보증금2억 월450만원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

**부동산 미분양**

광주의 강남! **The S1 더실아파트**

25% 파격할인! 최대 1억2천만원 할인!

고층 대물 물건 최다 보유!

44py 54py 65py

공동중개 문의환영!!

분선동 더실 할인 물건 전문 공인중개사사무소

**제석공인중개사** 분양문의 062)673-3100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 010-8494-9484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꾸꾸는 공주]

- 꾸꾸는 공주처럼 아름답다.
- 피부가 보드럽고 매끄럽다.
- 내 여자 같이 오래-오래
-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이 편리하다.
- 성 별과 실리가 예방된다.
-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다.
- 원안성신/해외마진/독신자생활사에

※ 사은품 80,000원 상당 증정 ※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저구려이 당당해 지므로 복용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약의품이 아닙니다.

농협 1100-3108 인양현 생로병사 불로장생 책을 드립니다.

02-2068-4142 010-6306-7070  
02-2068-4143 010-3611-8272